朝鮮日報
檀紀四二八三年一月九日 (月曜日) THE CHOSUN ILBO. 第八千二百十九號
朝鮮日報社 서울市太平路一街
電話 編輯局(2) 3386 4692 營業局(2) 3384 3315 4693

前途多難한國會展望
任期延長案最後關頭
國政監査結果에도關心至大

檀紀四二八二年十二月二十日召集開會된 第六回國會(第二次定期會)는 同二十三日부터 臨時休會中이던바 오는十二日再開될것이다 이번定期會는 現國會議員의最終會期가될 것인바 앞서부터 問題되고있는 任期延長問題는 果然어떻게歸着지을것인지? 또는 四二八二年度第一回追加更正豫算案을비롯하여 四二八三年度豫算案外 前會期에서未處理中인 六十餘法案其他案件의山積 國會開設以來最初의國政監査結果의 報告 …

任期延長問題

交涉團體再問題

豫算審議와 法案等處理

"動機"는 "通商"
英中共承認에 美國會의反響

商權保全도難期
李大統領 英의中共承認에 談話

四五年九月二日以前在日韓人
日府政日人으로取扱

閣布 內公規 日法

日泰通商協調印

希國會解散

安保今日開會
議長에蔣中國代表

『코롬보』會議 今日부터開幕

各表續續到着

大韓靑年團 全國大會

趙議員脫黨乎

中共西藏支配 意思를表示

印度外交代表 中共이招請

蔣氏要人과協議

周中共外相 外交官에指示

社說
言行一致 왜못되나

『멕시코』도 國府承認取消

中國情勢轉換
月曜時評

最後의斷案?
제섭, 蔣氏會談注目

年誌 (七)

八面鋒

謹賀庚寅新春

◎唐津◎ (其二)

唐津郵遞局長 | 李快英商店 | 唐津邑內 永信自轉車店 主 李虎烈 | 三成洋襪工場 崔在湘 金萬鳳 | 唐津邑內 다이야再生工業所 林相權 | 任福宰精米所 | 大昌理髮館 鄭鎭洪 | 唐津郡物資運營會 | 唐津郡唐津面邑內里 李智永 | 唐津邑內 東光商店 | 唐津邑內 榮信機械製作所 朴英 | 唐津邑內 朝光木工所 李元雨 | 唐津邑內 우리商會 金泰根 | 唐津邑內 二和商會 高楨完 | 唐津邑內 三復商店 吳畛燮 電話二〇番 | 唐津邑內 柳一木工所 柳亨洙 | 忠南旅客自動車株式會社 唐津營業所

唐津郡邑內 司法書士 李德榮 | 豊川藥房 | 湖文堂書店 | 唐津邑內里 唐津고무工業所 | 唐津邑內 司法書士 朴德俊 | 湖西洋服店 | 大興木工所 | 興榮根 | 兄弟商會 | 唐津邑內 金泰根 | 唐津邑內 明月食堂 片吉龍 | 唐津邑內 唐津堂時計店 | 朝鮮旅館 電話二八番 | 大韓相互株式會社 唐津事務所 | 南鮮電氣株式會社 唐津派出所 | 唐津邑內 司法書士 元丙常 | 唐津邑內 京城堂時計店 | 唐津邑內 德興和商店 | 唐津邑內 동흥이발관 | 唐津邑內 中華料理 德興館 | 泰陽醫院 | 唐津邑內 信仙屋 兪玉振 | 唐津邑內 甲成館 李鍾甲 | 唐津邑內 司法書士 金世興

朝日寫眞館 | 島池堤水利組合 | 高大支署 | 富成精米所 | 長項精米所 | 唐津郡高大面 面長 孫鏞 | 高大公立國民學校長 | 高大公立國民學校學父兄會長 | 石門支署 主任 崔聖煥 | 唐津郡石門面 石門公立國民學校 校長 李明雨 | 華西醫院 朴商俊 | 普德浦警察官出張所 | 三峰公立國民學校 校長 李淸吉 | 朝鮮運輸株式會社 普德浦取扱店 | 石門面通丁里 仁川館 金順成 | 石門釀造場 | 順城消防隊長 李明性 副隊長 李仁雨 同 李在同

未決囚人權 保障되려나？

拘留期間大幅短縮 最高二個月로 制限

法典編纂委서 드디어 具體化

해방후 일제 사회질서의 혼란한틈을타서 가진범죄가 격증하여 날로 형무소는 초만원을 이루는상태에빠지고있으며 이에반비례하여 전국법원에는 사건처리에 있어 판사부족으로말미아마 현재미결상건은 그대로답지하여 서울에만도 二천여명의 미결수가재판을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미결수의구류기간도 무기한으로 연장되여가는형편으로 구류일후 반년간이나 미결로있는것은 예사이며심한것은一년 내지一년반이나 되는것이부지기수로 인권옹호의견지로보아 이문제에대한 법원당국의 타개책강구요망의소리는 벌서부터 부르짖어지고 있던바인데드디어이에대한 타개책이머지않어 실현될단계에 이르게되어 인권보장에새로운 서광이빛이게되였다

즉 기보한바 법전(法典)편찬위원회에서는 현재사용하고 있는 일제그대로의 법의 적용은 우리나라 고유문화와 민정에맞지않는 폐단을 가져오고있으므로 조속한시일내에 이를시정코저 형법(刑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민법(民法) 친척법(親戚法)등에 대수정을가하고있는중인데 각七일에는 르요일임에도불구하고 오후六시까지 형사소송법을조사연구하고 장시간에걸친 편찬위원회의진지한토론을한결과 특히 전기미결수에 대한 구류기간문제가 이외로논쟁되어 드디어 앞으로의 미결수에대한 방침의결정을 보게되였다 상기한바와같이 구류기간은 모든애로로인하여이제까지 인권이무시당하고무기한으로 연장되여오고있었든것인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미결수의구류기간은 최대한도를구류기일로부터 기산하여 二개월로정하고 이기간내에 반다시 첫공판을 열지않으면안되게되었는바 그리고첫공판이 후다시 一개월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다시판사로부터 구체적인 이유서를 첨부하여야만 구류기간이 재로히 개신되게되었다는데이렇게되며는 이제까지의무기한으로 구류되어있던미결수들에게 커다란편의를 준것이며 또한이방침을원칙으로 하는 한편 기타 공판에서는 연관성을 갖어온 사건은 이제까지의 분리심을 단독이나 합의로 병합시키게되었다 그리고 또한기지 인권옹호를 위하여 만히진행시키기위하여 다독(單獨) 또는 합의(合議) ...

絢爛한 國民藝術祭

長安人氣獨占下에 드디어 開幕

국민보도연맹주최인『제一회국민예술제전』은 예정대로 작八일상오十시반부터 명동시공관(市公館)에서 개막되었다 동연맹에서 개막되였다 이때까지 전향한맹원들이며 좌익으로서 예술제전은 자기들의기능을 마음것발휘지못하여 궁금중에쌓였던 예술인들의 공연(公演)인만큼 그들외의인기는 장안(長安)에파동을이르켜 일요일을맞은시공관은관중으로개막전부터 벌써입추의여지없이초만원이루게 되어 정각十시반 예술전총(鄭芝溶)씨의 사회로 개연된후 개막사를 시작으로 공연되었다 순서에 따라서 음악연주(綜合奏)와 이현순 의 제二부는 『모찰트의 소야곡』을 그들의 자유로운 송씨에서 오려나오는 선율(旋律)이며 그는오로 해방된 저사상의코민에서 민족을위하는 기쁨이 아니라 다음가 마 여 일하겠다는 비장한 음색가연보여 청중의 흉중에 아름다운감정을 돌아주었으며 문학준(文學俊)의 복음(樂律)씨의 제금(提琴) 독주역시 만장의우뢰같은 박수를받아 동예술제전은 시종여일 관중의흥분속에 끝고시낭독 연극으로 하오一시반경 첫날의전공연을성대히끝마쳤다 (사진은 예술제전)

서툴은스케팅 살을 에이는듯한 찬바람에 수도물이 꽁꽁얼어 어머니 누님은 눈물을 흘릴망정《스켙》날은 종일걸려 기다려오던 꼬마대장들에게는 기다리던 천소수교외는 바다 나창경원연주공 어름판은 물론 한강까지꽁꽁얼어붙어 즐거이놀고 눈이펄펄날리드니 공기는 맑고 어름판은그대로 꽁꽁 아버지는졸라산을붓들고 채배우지못한 스케팅의 묘미가 더한층근사하다 (어제德壽宮에서)

깽共犯은尙今未逮捕

某方面에서方今搜査中

세칭 八십만원의 조흥은행(朝興銀行)《깽》사건의 주범은 기보한바와같이 이미 체포되었거니와 수사본부인 서대문서에서는 그의공범을 마저 체포하고저 지난二일 X X 山방면으로 형사대를 급파한바 있었으나 六일에 이르러 온전보에 의하면 공범은 X山방면에서 탈주한것 같다는 것이나 그래서 七일 또다시별동대를 ○警△州방면으로파견하고있는데 어제(八일) 오후一시현재 아직것체포하였다는 연락이없다고한다 이에 기자의 외심되는점은 공범은일본정도(京郡) 모상업중학교를 졸업한자라는것으로 미루어보아 어떠면일본으로 도주하였는지도 모른다는 견해로 관계당국에서는 국외로도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 한다.

서울醫師會幹部들 陸軍醫學校서 訓練

서울특별시 의사회에서는 위원장임명재(任明宰)씨외 四十○명의간부들이 一二일부터 (...)육군의학교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다고한다

變更되는 養子制의이모저모

婿養子相續不認

同姓同本에만局限된다

작보한바와같이 법제편찬위원회에서는 민법(民法)요강에있어 양자제도에대한 획기적인 개정안을내어 이성(異姓)양자를원칙적으로 인정치않고 세더러거나와 법전편찬위원회에서 기초통과된양자에대한 법적견해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養子의條件과認定되는것

1, 원측적으로 양자는동성동본(同姓同本)이어야한다

2, 양친(養親)됨에는호주의장계(良系)의 남자임을 요치않도록하여야한다

3, 양자는 그혈통에있어 친(親) 혹은 양자와자(子) 보다는 양자보다 나이가 같거나 위이면안된다

4, 성년(成年)이된자는 기혼(旣婚) 남자라도부모의동의를얻어 양친(養親)에 입양할수있고 또는양자로드려갈경우에는 배우자가있을경우 배우자와공동으로 양자연조(緣組)하여야한다

5, 양자는 양친의존속(尊屬)이어서는안된다

6, 유언(遺言)양자는인정된다

7, 사후(死後)양자는 죽은뒤결에 친족회에서 정하는양자도 인정된다 8, 서자는 호적에 입양을해출하므로서 그효력을발생케되며 상속에 있어서는 양자는 출생한 적(嫡)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養子로써認定안되는것

1, 이성자(異姓者)는 양자될수없다

2, 호주의직계장남은 가상속을위한 이외의경우에는 양자가될수없다

3, 서(壻)양자는 인정치않는다(따라서 딸에게세도 상속권이없고 이렇게되는 경우에는 친족회에서 결정된제일가깝은자가상속을받는다)

4, 백골(白骨)양자(성은같으나 관련이 닿치않은자)도인정치않는다

5, 부부양자 수양자도인정치안는다

文盲一掃에五個年計劃

公民校增設하여退治에注力

일제의 우민정책에서 해방되어 우리말 우리글을찾은지 벌서五년이상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전인구의三분지一에 해당하는七백만이상의『한글』미해득자가있어 앞으로문화국가로발전하여야할 대한민국의 전도에 큰암영을던지고있음에비추어 문교당국에서는 금四二八三년부터 앞으로五개년동안을 문맹완전퇴치계획실시년으로결정하고 멀지않어서 이에관한 적극적 활동을 개시하리라한다 즉현재남한전역에있는七백만의문맹중 十二세미만의아동은 원칙적으로 의무교육제실시하여 교육을실시하고 남어지十三세이상의 불취학소년및성년은 맹五백만은 이를五개년간으로분할하여 매년백만명식을이계획에 의해서 각공민학교에서 교육하게되여 이에따라현재전국가정에있는 공민학교총수 一二、二四九교

新正隨想 새 해 (二)

李 熙 昇

내 또한가지 즐거운길을걸은 일이있다 時節의길을 밟게된이길에도고개 月의길이다 평탄한고개 개가있다 좀 평탄한고개도있었으나 대개는險峻했던 고개를넘었으나 앞으로는 이미五十여고개를 넘었으나 앞으로도 얼마나 고개를넘어야 될것인지 지금 또한 고개를 넘어서 마르려 한다 거의 고개가 있을것이다

다 아직은 好奇心은 如前하다 이번 마르려에 올라서면 또어떠한 風景이 눈앞에 展開될가 그것은올라서 보아야 알일이다 그러나 한고개로 征服하고 새로운 世界는 展望하는 恨 感은 또한 如前하다 이 고개는 本來하느님이 주신 것이 아니오 人爲로만 ...

든 고개였다 미싱을잘 마련한 고개가 이런고개가 없고야 무슨길을걷재미가 있을가보냐 한고개는 넘어서서 새로운 世界는 展望하는 재미 또한고개를 넘어서서 또새로운世界는 바라보는재미 이재미 없고서야 果然 살아갈 맛도없을것이다 대저 이 고개는 대목의 고개요 고개는 새해로의 除夕의 고개다 고개다 참 險峻하고 然 비저땀이 흐르는담 이나 事情을 이야기하여 물가나 첫째 빚쟁이 등살에 올해도또 그대로 넘기느냐

나고 저승에나가자 잘오려 내대로 파드키 줄는 라 대낮은 마자 넘 바람에 冬至雪上 이언만 果然 비저땀이 흐르든 四十五度 急傾斜의 고개 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느라 몇十倍의 진땀을 흘리게 되든 界는 바라보는 몇 갈은 것 고개를 넘어서면 고개마루턱에 만 올라서면 어깨가 거뜬하고 리기로 해방이 빼개는 듯 하든 마음도 들 鬱 神이 쾌락하여진다 아 新年 고개와 고마운 고개여 기에 있다 둘째, 안해에게 줄 한 두 가지 『며보 대돈은 되어오』는 데 쌀 말 나무 단이 라도 준비하여야 하겠지

것이 없으니 무명 자라도 알뒤 집에서 떡 치는 소리가 요란히 들려오니 自然先生처럼 거문고나 탈 줄 알았드면 방아타령이라도 아 뒤어보련마는 그럴수도없고 平時에는 안해 앞에서 큰소리만 탕탕하든 놈이라 대몫을 당하고 보니 두 마리 만도 못 하였다 그 구 입을 봉하여 날 뜻 은 큰 부 어 가고 싶은 마음이다 默默不答 앉았으니 所謂 大丈夫로서 그 가슴인들 오죽답답하랴 셋째로 어린것들에게 줄 옷 벌 서 져 의 어머니 해 설 몇 밤만 자면 설 이 오 ...

效奏動運電節

節電運動奏效

點滿으로 一着된 十里往

지난 달부터 시작된 절전운동으로 (...) 정부에서는 작년연말의 제一차절전운동에 있어서는 (...) 오는 二十五일까지로 제二차운동기간으로정하고 매일하오六시부터十一시까지 각전등지에 선별로할당량 유지에대한 배려를 하였다는데 그성과는 어떠한것인지 과연 (...)

▲往十里配電線(配電量二〇〇KW)

	使用量	超過量
六時	二四〇KW	四〇KW
七時	三二〇	二〇
八時	三三〇	三〇
九時	三三〇	三〇
十時	二〇〇	二〇
十一時	二〇〇	一

學生風紀를團束

극장이나 땐스파-티(...) 일은주반사가되고 섣지어는 술집에까지 진출하여 서 학생들을부리는 할서학생

遊學가서殺人劇

美韓國學生間의惨事

미국에 유학중인 한국학생두명이 싸움끝에 동료를 절러죽였다고한다 八일 전하는바에의하면 서울출신의『두부—크』 발UP통신 생 오춘근(二四)군은지난六일 기숙사에서 역시 서울출신인 최덕안(三六)군에게 자살(刺殺) 당하였다는데 그들은 최덕안에게 발송된 수표(手票)를 가지고 서로싸우다가 마침내 살인극을 연출하게된것이라한다

高紡操業開始

원면(原棉) 고갈로말미아마 구랍(舊臘)三十일에는 국내최대 지설을가진고려방적영등포공장에 작업을 ...

命署長永訣式嚴修

고경무부방서장 김용순(金容淳)총경의영결식은 예정대로 八일 상오十시부터 시내 동교 광장에서 이(李)서울 시장을 비롯하여 김(金)경찰국장 장택상(張澤相)씨등 내빈다수참석하에엄숙히 거행하고어어 장지인 망우리로발인하였다

保聯槐山支部結成

[槐山] 충북보도연맹괴산군지부결성대회는 지난十二월二十七일괴산명덕(明德)국민학교 교정에서 맹원五백여명과 관민다수참석하에 성대히거행되였다

八面鋒

▲쌀값이오르며 고 나무값도오르고 전기료금을올린다니까 정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까지 소리 값이요 그때문에 모든물가가을튼으니 그럴수밖에 ▲나무를실어올때도 까소린이 늘고성 낭도 공장에는 노무자문제가정에서 쓸수도없을것이니 이 땅의 오든기 조절이 수다스리나기 가저고있는모양▲ 진작 벌써 이런판이면 오는 것을! ▲목탄이나 카—바이드가국하단들까 소리길이 만방을또 나지않으리라는 만무치 않으나말이다

群像 (178)

朴 泰 遠 作

金 奎 澤 畵

第十一章 (五)

(...) 아니라, 그러나 하는 (...)

謹賀新年 (其三)

◎唐 津◎

順城公立國民學校 校長 趙東漢 後援會長 李錫珪 外職員一同

唐津郡順成面鳳巢里 大同藥房 主 印國煥

順城面長 外職員一同

唐津警察署 順城支署 主任 方漢吉 外職員一同

唐津郡順城面中方里 宋商源

柳谷公立國民學校 校長 金敎三 後援會長 李煜 外職員一同

村山公立國民學校 校長 洪孟善 校監 徐萬錫 後援會長 李種益 外職員一同

松山面長 金爽漢 外職員一同

松山支署主任 黃範敦 外職員一同

唐津郡松山面漢津里 唐津漁業組合 組合長 印權植 理事 張英煥 副理事 崔凍鏞 外職員一同

唐津警察署 漢津出張所 主任 斗 外職員一同

唐津郡松嶽面 面長 具滋化 外職員一同

서울交響樂團 第十九回定期演奏會

本社廣告部 電話本(2)四六九三番

指揮 金聖泰 / 바이오린獨奏 朴敏鍾

曲目
1. 交響詩曲『해 끝의 춤』상 사 앙曲
2. 바이오린協奏曲 第五番 모오찰트曲
3. 交響曲 第八番 베토오벤曲

◎定期會員에게드리는말슴
1、定期會員(A、B、特히이번에는 C會員(學生)新入會員으로下記指定申込處에서 會員證交付를하오니미리받으시도록하라나이다
2、指定申込處 鍾路·白鳥舍·和信樂器店·明洞 文化·國際樂器店·忠武路 音樂社 無名·漢市樂器店·西大門 (...)
3、會員中 音樂雜誌12月號는 아즉못받으신분은指定處에서 받으시도록하랍니다

1月11.12.13日 밤6·30 市公館

男女生徒募集 靑丘中學

사랑의曙光

突然 戀愛을잃고 사랑의苦惱와 싸우는女性! 보시라 新年 第二週에 드리는 사랑의敍事詩!

提供 『愛育計定』

ECA는우리韓國을 어떻게援助하는가?

8日부터 서울劇場

過 (...) 三大名畵 一時上映

카라반 處女의愛情

奉仕料金 100圓

언제나記憶에 남어있는名畵!

7日부터 10日까지

여러분의 首都劇場

삔 諸賢께告함

新春을期하야 洋畵팬 諸賢께 드릴려든 膳物로서 美國新輪入映畵 『罪의그림자』를 第一砲으로 上映키로 되였아오나 映畵配給者側이 「스파인포—스」即(國文版字幕插入)을 서울映畵株式會社에 囑하였든바 公開前日까지 完成의 約束을 不履行과 理由로는 技術面의 不足과 錯誤로서 不得已上映치못하옵고 完全한 製品으로서 諸賢을모시려는 同時 初日에는 酷寒零下十八度에도 不拘하시고 旺臨하옵신데는 再三百倍謝過하는 바이오며 弊劇場도 努力에努力을加하야 諸賢께도 面目을一新코저 各技術面의後援을어더 期必코오는『壹月拾壹日』을期하야 上映하옵게 되였아오니 이點을 널리 下諒하시와 많이 旺臨하여주시옵길仰望하옵니다

追記 今年度부터는 國文版이 아니면 上映不許可인 故로 國內에서 努力하였으나 모—든 設備不充分으로 因하여 (從來는 日本에서 國文版挿入製作)

首都劇場 代表白

오케OK票 学用고무 기분좋게 잘져지는

聲明書 (...)

求 英文타이푸라이타 一台(新品) 鍾路區樓下洞一九七의三 泰

성명서 (...)

謹告

國家發展과民族文化를向上키爲하야 生等이陽城中學設旣成會를組織하고 第一次計劃으로三敎室을建築코자하였으나 昨年度稀有의旱害로 地方農村이困乏하야 重大難에逢着하였던바 郡警察署 各官公署에서率先示範하여주시고 郡內各界有志와 서울市內特志各位의懇篤하신文援과 陽城、元谷、孔道、大德四個面及龍仁郡古三面志各位의二重三重의贊助로 目標의建物을無難히完成하고 備品도着着整備中에있아오며 現在二學級을收사알고 今年新學期에는更히一學級을增募하게되였아오며 今年秋成後에는完全中學으로昇格시키기로 各位의華備心이確固하오심은國家의將來와民族의前途를爲하야 賀하는同時各位에게 紙面을通하야 感謝의意를表하고 年의萬福하오심을仰祝하나이다

檀紀四二八二年一月一日

安城郡 陽城中學設立期成會役員一同